

트럼프, 사법 리스크·암살 시도 받고 '징검다리 집권'

TV토론서 바이든 낙마에 '최고령' 기록 다시쓰며 백악관 재입성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 女風 앞세운 '해리스 돌풍' 잠재우고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권 재도전 끝에 6일(현지시간) 사실상 대통령으로 확정됨에 따라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하고서 4년을 절치부심한 끝에 세계 최강대국의 지휘봉을 다시 거머쥔 것이다.

이로써 1946년 6월 14일생인 그는 내년 1월 20일 만 78세에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재 최고령 대통령은 2021년 같은 날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만 78세에 취임했지만, 생년월일이 1942년 11월 20일이라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5개월여 더 '젊은' 나이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두번째로 첫 임기 후 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하는 '징검다리 집권' 기록을 쓰게 됐다.

앞서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한 이는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덮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 등을 돌린 미국 유권자 표심을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끌어모았다.

특히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뛰어넘어 다시 4년만에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집권 1기에 이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는 기존 정치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는 '이단아', 거러지향적인 '사업가' 기질을 오히려 드러낸 탓에 미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대격랑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이단아에서 저소득 백인 지지층 등에 업고 공화당 주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대권을 거머쥔 2016년 대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류 정치와는 거리가 먼 '아웃사이더'였다.

1987년부터 공화당→개혁당→민주당→공화당→무소속 등으로 당적 변경을 거듭하던 그는 2012년에야 공화당에 정착했다.

2015년 6월 16일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을 때 한 자릿수 초반대의 미미한 지지율로 완주 가능마저 의심받았지만, 이듬해 경선을 거쳐 공화당 공식 후보가 됐다.

당시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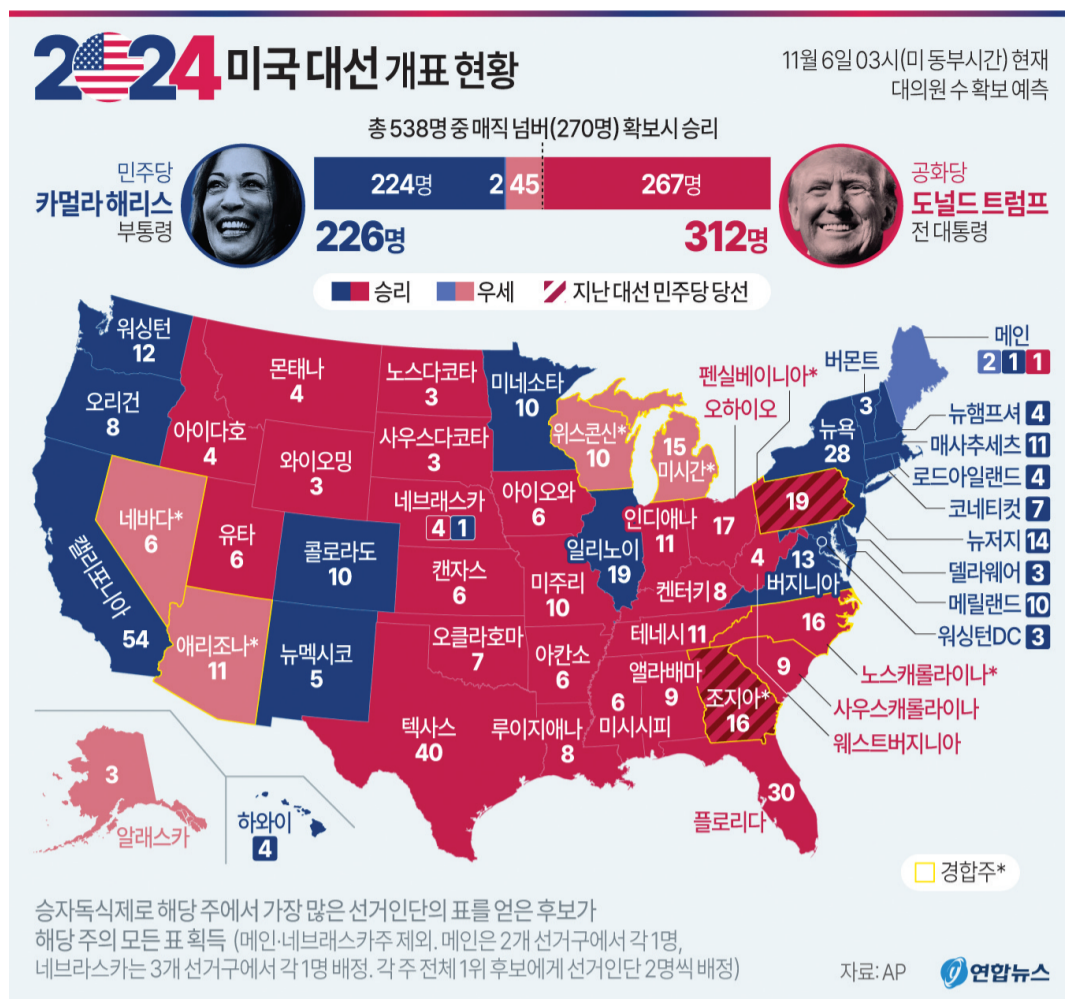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지층에 더해 미국에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소외되고 밀려난 백인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막강한 지지를 등에 업은 덕분이었다.

그는 제45대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미국 사회를 지배해 온 엘리트 정치와 기성 주류 언론을 독설과 조롱, 모욕을 섞어가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한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 아래 특유의 통념과 전통을 깬 기행을 일삼았다.

불법 이민을 막으려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미국판 만리장성'인 거대 장벽을 건설했고,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미 대통령의 권력을 한껏 활용해 '마이에이'를 걸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협박하며 재협정을 관철해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차례 만난 데 이어 퇴임 후에도 '러브레터'를 주고 받으며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도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행보는 공화당 내부를 포함해 미국 사회의 주류·엘리트 계층으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했지만, 지지층은 오히려 더욱 열광시켰다.

◇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며 인플레이션에 쫓겨온 집권 1기를 통해 공화당의 일인자로 자리매김했고, 기성 정치인들을 줄 세우면서 '전통적 보수'를 표방했던 당을 '아에 트럼프당'으로 변모시켰다.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데 이어 2021년 1월 6일 극렬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폭동 선동 등을 통해 대선 뒤집기를 시도해 탄핵에 직면하

기도 한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내 '상향' 노릇을 톡톡히 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였다.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고, 외국에 고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거친 수사로 핵심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공화당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를 줄곧 관통해 온 인플레이션에 쫓겨난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사기로 규정하면서 미국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발굴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약속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혹독한 도전과 시련도 이어졌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추문 입막음 등 지금 등 혐의로 4차례나 형사 기소됐고, 성추문 입막음 등 관련 1심 재판에서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단이나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털어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패했다면 이들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족쇄로 남겠지만, 그가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정적 제거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녀사냥'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기도 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범의 총격에 오른쪽 귀를 맞은 뒤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특히 피를 흘리면서 불끈 권 주먹을 치켜세우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은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까지 더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美당국자 "북한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서 상당수 사망"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의 교전으로 적지 않은 수의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치 않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상당한 수(a significant number of)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과 교전이 이뤄졌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전선 이동은 확인했으나 교전은 사실은 공개적 확인을 보류했다.

NYT는 이번 교전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함구했다

고 전했다.

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과의 교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면서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 제810 해군보병여단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했다.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공격부대와 지원부대의 두 단위로 나뉘었는데, 지원부대는 우크라이나군에게서 탈환한 지역의 방어선 구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또 이 당국자는 이번 교전 북한군 외의 나머지 병력도 대부분 조만간 전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과 자국군 간 교전 사실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尹 오늘 회견 ... 의혹 불 끝까, 불 지를까

명태군·공천개입 의혹 사과 가능성 김건희 여사활동 중단은 불가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 속에서 민심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한(친한동원)계는 6일 이번 메시지에 대통령실 및 내각 인적 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전면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전향적인 쇄신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

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의 경우 인적 쇄신이나 김 여사 문제 등은 윤 대통령이 결단할 영역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 쇄신의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서는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군씨 통화 공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위적 인적 쇄신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있고, 김 여사의 활동도 외교·의전 등 관련 분야에서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 대표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형성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